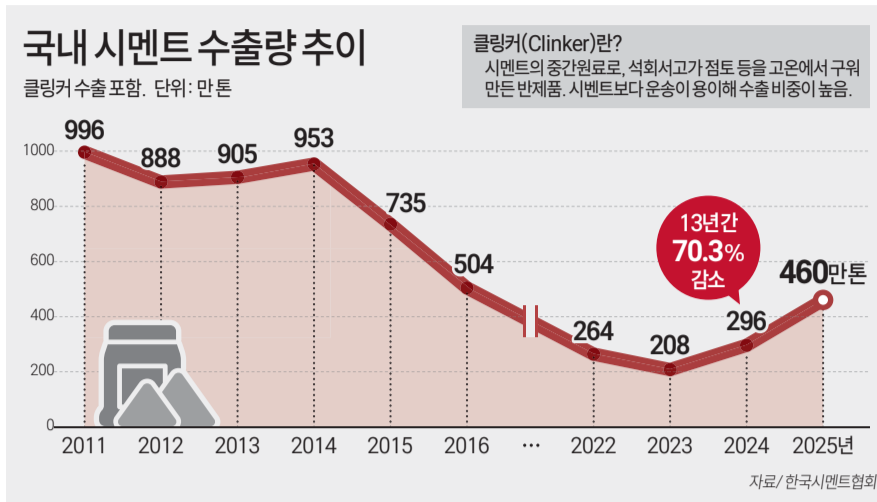


# 시멘트, 年 1000만t 수출 반토막... 내수 침체에 갇혔다

2011년 수출 996만t 정점 찍어  
2023년 208만t까지 주저앉아  
작년 반짝 반등에도 단가 하락  
내수 3760만t... 34년 만에 최저  
가동률 크게 떨어지고 판로 위축  
고환율·원자재값 상승 '빨간불'

한때 연간 1000만톤(t)에 육박했던 시멘트 수출이 10여년새 전성기의 절반 가량으로 주저앉은 등 '시멘트=내수 산업'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시멘트산업이 가뜰이나 계속되는 건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까지 부진해지며 나라 안팎으로 돌고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시멘트 내수 판매량은 3760만t까지 떨어지며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시멘트 총 수출 물량은 996만t으로 1000만t에 근접했다. 이는 클링커(548만t)와 시멘트(448만t)를 더한 수치다. 알갱이 형태의 '클링커(Clinker)'는 시멘트 반



제품으로, 석고 등을 넣고 분쇄하면 시멘트 완제품이 된다. 클링커와 시멘트를 합한 시멘트 총 수출은 2014년에도 953만t을 기록한 바 있다. 시멘트 수출은 이후 2015년 735만t, 2016년 504만t으로 점점 줄더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엔 264만t→208만t→296만t을 각각 기록하며 200만t대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460만t으로 반짝 늘었다.

수출은 주로 해안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쌍용C&E(동해), 삼표시멘트(삼척), 한라시멘트(옥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쌍용C&E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쌍용C&E는 2024년 한해 업계 전체 수출 물량의 79%인 234만3427t의 시멘트를 해외에 팔았다. 중국, 필리핀, 미국, 칠레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작년에도 쌍용C&E는 전체 수출의 69%를 담당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멘트 해외 수출

물량이 줄어든데다 최근에는 수출 단가까지 하락하면서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쌍용C&E의 경우 2020년 당시 t당 4만5220원이던 수출 단가가 2023년 당시 6만3121원까지 상승했지만 2024년과 지난해에는 4만4483원, 4만2671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수출 물량이 다소 늘었지만 단가가 하락하며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는 내수 판매가 최우선이다. 비싼 운송비까지 쥐가며 해외에 먼저 팔이유가 많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수출은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수 수요가 많으면 해외에 팔 물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수가 위축되면 공장을 놀리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해 수출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돈이 남기만하면 수출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IMF 직전 6000만t을 넘어섰던 시멘트 내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2018년까지 5000만t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 침체로 4000만t대까지 내려서더니 지난해엔

3000만t대에 진입하며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올해도 시멘트는 빨간불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시멘트는 그동안 미국 서부, 러시아 극동, 중국 연안,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됐다.

내수는 그렇다쳐도 수출을 위한 운송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중국산 저가 시멘트의 공세로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며 수출 판로까지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공장 가동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2024년 당시 클링커 기준으로 82.3%에 달했던 쌍용C&E의 가동률은 올해 1분기에는 69.8%까지 하락했다. 삼표시멘트의 경우 가동률은 클링커가 65.9%, 시멘트가 49.7%에 그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생산능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착화로 인한 유연탄, 석회석 등 주요 수입 원자재값 상승 등 시멘트업계는 현재 사면초가, 진퇴양난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삼성, AI가전 품은 모듈러 주택시장 진출

공간제작소와 단독주택 시장 공략  
공장 제작 단계부터 가전·IoT 등록  
설치·연결 부담 줄인 주거 경험 제공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가전과 스마트홈 플랫폼을 결합한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며 미래 주거 시장 공략에 나선다. 가전이 설치된 이후 연결되는 수준을 넘어 주택 설계·제작 단계부터 AI 홈 환경을 구축해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인 공간제작소와 협력해 '삼성 AI 모듈러 홈'을 출시하며 단독주택형 모듈러 건축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18일 밝혔다.

공간제작소는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으로 기존의 현장 중심 건축 방식과 달리 AI 기반 설계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통

해 주택의 8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 및 설치를 진행한다.

이런 모듈러 주택은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고 균일한 건축 품질을 보장하며 건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공사 기간 단축 수요가 커지면서 모듈러 건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에서 주요 공정을 진행하는 모듈러 주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 건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와 공간제작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양사가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을 이달 오픈했다. 쇼룸은 공간제작소의 모듈러 목조주택에 삼성전자의 AI 가전과 스마트싱스 기반의

AI 홈 솔루션을 적용해 실제 주거 공간처럼 꾸며졌으며 330㎡(제곱미터), 66㎡ 등 총 2개소로 구성됐다. 실제 구매 시에는 고객이 라이프스타일이나 부지 규모에 맞춰 33㎡, 99㎡, 132㎡ 등 다양한 주택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 AI 모듈러 홈'은 모듈러 주택의 장점인 건축 편의성과 균일한 품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장 제작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가전제품과 솔루션이 설치·등록된 채 배송되어 편리하다.

공간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 에어컨, 히트펌프 보일러, 냉장고, TV 등 AI 가전과 스마트 조명, 홈캠, 도어캠 등 20여종의 스마트싱스 연동 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입주 시 가전을 구입하고 홈 IoT 네트워크를 등록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입주하는 즉시 AI 가전과 솔루션을 사



삼성전자가 공간제작소와 함께 '삼성 AI 모듈러 홈' 솔루션 쇼룸을 오픈했다. /삼성전자

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품 구매 및 설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편리한 AI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양혜순 부사장은 "공간제작소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의 기획·제작 단계부터 AI 가전과 솔루션이 탑재된 모듈러 주택형 AI 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솔테크닉스

## 월테크놀로지 인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분 83.37% 확보해 자회사 편입

한솔그룹 계열 전기·전자소재 전문 기업인 한솔테크닉스가 반도체 검사 부품 전문기업 월테크놀로지 인수를 끝냈다.

18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는 월테크놀로지 주식 611만 544주(1772억원)를 취득해 지분 83.37%를 확보하고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월테크놀로지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프로브카드(Probe Card)'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업이다. 특히 스마트폰 메인칩(AP)과 이미지센서(CIS)용 프로브카드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외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타이어업계, EU관세 예고에 유럽 공급망 확대

넥센, 체코공장 자동화 창고 증설  
한국타이어, 헝가리 생산 강화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중국 생산량을 줄이고 유럽 현지 생산 확대에 집중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타이어에 최대 52%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체코 자테츠 소재 유럽공장 내 완제품 자동화 창고를 증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유럽 현지 생산량 증가에 맞춰 물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규 창고는 연면적 7104㎡, 높이 51미터(m) 규모로 이번 증설을 통해 타이어 보관 능력은 기존 약 53만 개에서 약 83만 개로 약 57% 늘었다.

넥센타이어는 2019년 유럽공장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24년 2공장 증설하고, 생산량을 지속 확대해 현재 연간 약 1000만 개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 물량과 유럽 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0월 완제품 창고 증설을 추진했다.

신규 창고는 완전 자동화된 입고 시스템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제품 추적 시스템 등 첨단 물류 기술을 적용해 생산부터 보관, 출하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타이어는 유럽 현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07년부터 헝가리 공장을 가동해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증설을 통해 트럭과 버스 타이어 생산 라인까지 추가하며 약 1800만본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ysw@

## K-스타트업, 파리 비바테크서 기술력 알려

중기부, 통합관 열고 39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프랑스 현지에서 K-스타트업들의 유럽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17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비바테크놀로지 2026'에서 'K-스타트업 & K-이노베이션 통합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바테크놀로지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투자자 등이 미래 기술을 공개하는 유럽의 대표 스타트업·테크 전시회로, 올해 18만명의 참가객과 스타트업 약 1만4000개사가 참여한다. 개최 10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 생산성의 재정, 기술주권·윤리를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의 글로벌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3년 한국이 비바테크놀로지의 주빈국 격인 '올해의 국가'에 선

정된 이후 매년 K-스타트업 통합관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와 협업해 스타트업 39개사의 유럽시장 진출을 돕는다. 주식회사 옵티믹스, 스티그마, 그리네타, 나인와트 등이 참가한다.

또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랑스 창업 지원기관 방문부터 현지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네트워킹, 투자 설명회(IR)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목승환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기에 우리 스타트업들의 혁신 기술을 비바테크놀로지에서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참여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유럽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DX

## 직원 주도 AI 혁신 속도 AI 에이전트 직접 개발

포스코DX가 직원 주도의 AI(AI 전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기획·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며 전사적인 AI 체질 개선에 나섰다. 포스코DX는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AX 해커톤 2026'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DX는 지난해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을 선언한 이후 전 직원이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업무에 활용하고, 필요한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1인 AI 에이전트 시대'로 규정하고 전사 차원의 AI 혁신을 추진 중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